

円貨강세와 日本 石油産業의 換差益

최 근 일본 에너지산업계는 작년 9월에 개최된 바 있는 5개국 緊急財務長官(G5)會議의 합의결과 發生된 円貨강세에 따른 換差益과 지속적인 세계油價하락의 영향으로 原油代金 지불감소에 따른 差益을 두고 그 환원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이 二重差益은 계산방법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추정되지만 대략 1.6兆円(약 93億 달러)에 달한다. 이런 거액의 差益額은 어떻게 형성되어서 에너지업체가 향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환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産業 발전을 위해 도움되는 일로 판단된다.

1. 換率변동과 石油輸入額

円貨강세의 발단은 '85년 9월 22일 G5 달러強勢시정을 위한 합의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円貨는 <表-1>

<表-1> 달러當 円貨의 추이

	환율(¥ / \$)
1985. 9	239. 20
10	221. 43
11	209. 32
12	202. 60
1986. 1	194. 20
2	178. 60
3. 13	180. 30

(資料) 大藏省, 산케이新聞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 239, 20円으로 달러評價로 약세에 있었다.

그러나 3월 현재는 1\$ = 180円 선에서 시세변동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작년 9월 대비 30% 포인트 이상 円貨는 강세를 시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日本 산업계에 큰 파문을 일게 하였다. 즉, 수출의 존적 산업인 제조업의 組立加工業은 輸出單價의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素材産業은 原材料 가격의 인하로 다소 호전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제품가격인하의 압력을 심하게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계는 原材料의 대부분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판이하다. 換率변동에 의한 円貨강세효과는 환차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코스트인하의 폭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가격인하 압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日本の 石油수요는 1985년 4. 1百萬b/d로 이는 原油수입 3. 4百萬b/d와 製品수입 0. 7百萬b/d로 구성된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 石油수요는 第2次 석유위기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4百萬b/d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石油輸入額은 거대해서 총수입액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어서 輸入비중이 우리나라보다도 높다.¹⁾

1) 우리나라의 石油 輸入額/總輸入額 비중

연도 '80 '81 '82 '83 '84 '85 '86(展望)
% 27. 1 26. 6 27. 5 24. 4 21. 2 19. 5 19. 9

〈表 - 2〉 石油輸入額과 石油輸入比重

	石油輸入量 (百萬배럴)	CIF 原油輸入 單價 (\$ / b)	石油輸入額		石油總輸入額 (億달러)	石油輸入額 總輸入額	換 率 (¥ / \$)
			原油 (億 \$)	製品 (億 \$)			
1980	1,615.5	32.97	527.6	82.8	610.4	43.42	227.65
1981	1,448.1	37.29	533.4	85.6	619.0	43.20	219.10
1982	1,335.1	34.66	462.7	83.5	546.2	41.40	247.28
1983	1,320.1	30.77	400.6	89.2	489.8	38.76	237.28
1984	1,341.0	29.36	393.8	90.4	484.2	35.47	236.66
1985	1,232.5	28.10	346.0	86.5	432.5	33.41	202.60
1986. 1	96.9	27.77	26.9	-	-	-	194.20
2	119.7	27.57	33.0	-	-	-	178.60

〈資料〉 日本 大藏省, 「日本貿易月報」, 石油連盟, 「石油資料月報」

2. 石油業界의 換差益과 환원방법

한편 '85년 石油수입액은 432.5億달러에 이르고 있어서 달러당 1円 強勢時 연간 432.5億円の 환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년 9월의 1 \$ = 239.20円에서 '86년 2월말 현재 1 \$ = 180.60円으로 약 30% 강세된 결과로 原油도입액으로만 약 43億달러 (7,906億円)의 환차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石油業界의 石油33社는 '85년도 상반기 經常損失을 2,000億円을 나타내고 있어서 경상적자액을 차감한 실제차익은 약 5,906億円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환율변동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社内留保金 30%를 공제하면 石油業界의 순수 환차익은 약 4,134億円 (약 23億 달러) 된다.

이와같은 대폭적인 換差益에 대해 石油業界는 石油製品 가격인하를 통하여 국민에게 이 환차익을 환원할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日本의 최대 石油販買社인 日本石油(株)는 당초 石油製品價格의 인하시기를 금년 4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 3월의 石油製品은 작

년 12월의 수송분이기 때문에 '86년도 円貨강세의 효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石油製品가격의 하락폭은 금년 1~3월의 환율변동추이와 原油價格의 동향을 파악한 후 적절하게 결정할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日本石油(株)는 石油製品價格인하시기를 당초 4월 예정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품가격의 인하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긴 이유는 인하압력 이외에 二重差益에 따른 판매점의 가격인하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日本石油(株)가 이번엔 실시할 石油製品가격 인하(案)는 〈表-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揮發油는 都賣價格 기준으로 현재 1 當 135円에서 125円으로 약 8% 인하할 예정이며, 小賣가격으로는 1 當 138円 수준까지 내릴 방침이다. 燈油, 輕油等 中間溜分은 현가격에서 1 當 10円 인하시킬 계획에 있다.

三菱石油(株)와 大協石油(株)는 4월24일부터 日本石油의 石油製品가격 인하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를 결정할 계획중에 있다.

出光興産(株)은 당초 石油製品 가격인하시기를 금년 6월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년 2월의 円貨強勢효과와 油價하락의 폭이 상당히 컸지만, 이를 제품화하여 일반시장에 판매하기까지는 4개월의 시차가 발생함을 이유로 제시하였었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円貨강세에 따른 차익을 조속히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월 1일부터 製品價引下를 각사에 통보하였다.

한편 石油連盟의 揮發油 제품의 경우 약 10円 / 1 的

〈表 - 3〉 石油業界의 換差益

項 目	金額(億 円)
円貨강세에 따른 換差額	7,906 (43.9億달러)
石油33社 經營赤子('85上半期)	2,000 (11.1 ")
換率變動 대비 社内留保金	1,772 (9.8 ")
純粹換差益	4,134 (23.0 ")

(表-4) 石油製品 가격인하 내역

石油會社	引下時期	製 品	引 下 率	內 譯
日本石油	4월 1일	揮發油	8.0% (都賣)	135円/ℓ → 125円/ℓ
		"	3.6% (小賣)	143円/ℓ → 138円/ℓ
		燈油	18.2% (都賣)	65円/ℓ → 55円/ℓ
		輕油	12.3% (")	91円/ℓ → 81円/ℓ
		B-C油 (S.O. 3%)	11.0% (")	50円/ℓ → 45円/ℓ
三菱石油	4월 24일	日本石油(株)의 引下內譯과 비슷한 수준		
大協石油	"	"	"	"
出光興産	4월 1일	"	"	"
石油連盟	4월	揮發油 10円/ℓ		揮發油 도매가격은 환율 224円/\$일 때 135円/ℓ 로 책정된 것으로 현재의 환율변동과 油價하락을 반영하면 揮發油의 경우 10円/ℓ 인하 효과발생

가격인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1~3月) 揮發油의 도매가격은 작년 하반기 (7~10月)의 환율 1달러당 224円에서 1ℓ 당 135円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80円선이고 OPEC GSP가 향후 油價를 現 公示價格보다 5\$/b 인하된 23\$/b 로 전망됨을 감안할 때 揮發油 1ℓ 당 円貨強勢효과는 1달러당 1円 강세시 20전/ℓ 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原油 (FOB) 1\$/b 인하시 1.5전/ℓ 인

조정, 노후시설의 개체 등에 돌려 石油業界의 체질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3. 電力業界의 差益과 환원방법

電力業界 (9個電力會社)는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發電用 燃料로 原油, 重油, LNG 등을 重油환산 약 7,000萬kℓ¹⁾를 구입하고 代金으로 120億달러를 지

(表-5) 電力생산을 위한 燃料소비

	發電實績 (百萬 kwh)	燃 料 消 費				
		石炭 (千噸)	原油 (kℓ)	重油 (千kℓ)	나프타 (千kℓ) ¹⁾	LNG (千噸)
'80	514,031	9,775	13,481	35,731	4,338	12,986
'81	523,148	12,187	14,332	34,370	3,417	13,406
'82	522,513	14,821	13,744	31,044	2,652	13,310
'83	555,508	17,989	15,030	29,668	2,125	15,301
'84	580,413	20,567	13,920	25,946	978	20,332
'85	589,652	18,401 ²⁾	11,184 ²⁾	18,256 ²⁾	643 ²⁾	18,110 ²⁾

註: 1) 나프타에 NGL 포함

2) '85년의 燃料소비는 10月까지의 合計임.

(資料) 通産省, 「電力調査統計」

(表-6) 電力業界 換差益

	期 間	金 額	備 考
円貨強勢効果	'85.9~'86.3	2,916 億円	-
油價下落効果	'86.3~'86.12	4,880 億円	28.1\$/b ('85.9) 22.0\$/b ('86.12)
綜合 効果	'85.9~'86.12	7,796 億円	43價弗

1) 한국의 發電部門 石油수요 ('84)는 597萬 TOE 로 일본의 6,930萬 TOE 에 비하면 1/11에 해당된다.

하효과가 발생됨을 고려하여 종합도매가격의 인하효과는 8.875円/ℓ 로 시산하고 있다.

이러한 石油製品 가격인하의 동향에 비해 通産省은 円貨강세에 따른 차익분을 現 石油業界가 직면한 過剩設備

불하고 있다. 따라서 달러당 1円이 강세되면 연간 120億円の 환차익이 발생되며 작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換差益은 약 2,916億円이 된다. '86년의 경우에는 환율이 1달러당 180円으로 안정되면 円貨강세와 油價하락효과를 합하여 7,769億円(43價달러)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거액의 差益分에 대해 전력업계는 電力料金の 인하를 통하여 그 差益分을 환원할 움직임이다. 電力부문의 換差益 환원은 이미 1979년 円貨강세로 인한 3,800億円の 환차익중 70%인 2,660億円을 電力요금인하로 실행하여 가구당 평균 270円을 돌려준 경험이 있다. 1980년 제 2차 石油위기의 여파로 '81년 4월 電力요금을 평균 50% 대폭 인상한 결과 円貨강세를 내부유보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심하였다. 그래서 1983년 배럴당 5

달러의 油價하락시에는 그 差益효과를 原油變動積立基金으로 활용한 바도 있다.

그러나 금번의 円貨強勢효과와 油價하락의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電力業界는 差益의 50%를 換率變動 對備 社内 留保金으로 적립시키고 나머지 50%를 電力料金 인하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電力業界는 그 인하시기를 5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각계의 인하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한 6월의 參議員 선거를 겨냥한 심산이기도 하다. 電力料金の 인하 폭은 일률적으로 4~5% 정도 인하하여 소비자에 대한 공평한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電力料金の 인하 내용을 보면 산업용의 特別割引料金を 하향 조정한다는 것과 家庭用料金の 3 단계요금제도를 완화하여 월 12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通算料金の 25%를 감소시킬 것과 月 200kwh 이상을 使用하는 가구는 통산요금의 17% 증가를 시현하여 過消費에 따른 電力소비억제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다수의 중산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通産省, 資源에너지廳은 그 산하에 전문인 5~6명으로 구성된 換差益 懇談會를 설치하여 電力業界의 차익환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5월경에 나올 전망이다.

〈表-7〉 電力業界의 電力요금 인하

引下時期	引下幅	具體的內容
'86年 5월경	4~5%	- 산업용 특별할인의 하향조정 - 가정용(저소비)요금의 인하조정 • 120kwh/月 이하 家口는 요금의 25% 감소 • 200kwh/月 이상 가구: 17% 증가

4. 가스業界의 差益과 환원방법

가스業界(3개회사)는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598萬톤의 LNG를 도입하였고, 그 금액은 15.5億

〈表-8〉 LNG 도입량 및 가스會社 도입금액

	消費量 (千噸)	導入量 (千噸)		CIF 導入 ¹⁾ 金額(\$ / 噸)	가스3會社 導入金額(億弗)推定
		電力會社	가스會社		
'80	16,841	12,986	3,855	265.94	10.3
'81	16,967	13,406	3,561	301.94	10.8
'82	17,454	13,310	4,144	297.77	12.3
'83	18,867	15,301	3,566	267.46	9.5
'84	25,834	20,332	5,502	254.83	14.0
'85	27,676	21,696	5,980	259.51	15.5
'86.1.	2,650	1,934(e)	716(e)	261.98	6.9 ¹⁾
2.	2,306	1,684(e)	622(e)	265.67	6.1 ¹⁾

註: 1) 導入量 전체 金額입,

2) 鐵網會社 소량포함

〈資料〉 石油連盟 「石油資料月報」 1986. 2.

〈表-9〉 가스 3 會社 (LNG) 換差益 추정

區 分	金 額
円貨강세 ('85. 9 - '86. 3)	454 億円
油價안하 ('86. 3 - '86. 12)	549 億円
合 計	1,003 億円

달러에 달하였다. 따라서 달러당 1円 강세이면 연간 15.5億円の 円貨강세효과가 있게 된다.

198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LNG 도입에 따른 換差益 (〈表-9〉 参照) 中 円貨強勢 효과는 454억으로 他에너지業界에 비하면, 소규모이다 油價가 1 \$ / b 인하시 가스 3 會社의 原料購入代金이 연간 90億円 / 年 감소효과를 나타내므로 '85년 28.10 \$ / b 에서 '86年末 22 \$ / b 로 정착된다면 原料購入代金節約에 따른 換差益은 549億円 (3億달러)에 이르러 가스 3 會社는 1,003億円 (5.6億弗)의 차익이 발생한다.

〈表-10〉 石油 · 가스 · 電力會社의 差益

	差 益		合 計 (億 円)
	円貨強勢 效 果	油價下落 效果 ('86)	
石油業界	7,906億円	-	7,906 (43.9億 \$)
電力業界	2,916億円	4,880 億円	7,796 (43.3億 \$)
가스業界	454億円	549 億円	1,003 (5.6億 \$)
計	11,276億円	5,429億円	16,705 (92.8億 \$)

5. 종합결과

이상을 종합해 보면 日本의 石油·가스·電力業界는 円貨강세와 油價하락으로 인한 효과가 각각 11,276億円, 5,429億円을 기록하여 합계 16,705億円 (93億弗)의 差益이 추정되고 있다. ☐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너지 동향」3/28〉

□ 焦點 □

런던非公式會議서

美 · 英 · 사우디等 油價協議

美國政府는 原油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美國의 석유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英國,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石油價格安定化會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OPEC 이 200만b/d를 감산, 北海油田 等 非 OPEC 이 50만b/d를 감산함으로써 石油價格을 1바렐당 18~22달러로 안정시키는 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石油關係消息通에 따르면, 런던에서의 사우디, 英國會談은 비밀회담형식으로 지난 2월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歐洲系 메이저, 美國 金融機關 대표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國政府는 그동안 石油價格 하락을 방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原油價格 폭락으로 美 국내산원유가치가 채산라인인 1바렐당 12달러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석유회사들에 융자하고 있는 金融機關의 불안이 커지고 있

는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을 전환, 런던非公式會議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런던非公式會議에서는 지금까지 감산, 가격목표 등 제 1 단계에 대해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 2 단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自國內 및 타 OPEC 각국의 감산실시를 위해 설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3 단계에서는 北海油田의 10萬b/d감산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런던회의에서는 適正石油價格을 1바렐당 18~22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美國은 국내산 원유의 채굴코스트를 12~15달러로 보고 이를 상회하는 수준에서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政府의 런던회의 참가로 적정가격이 修正될 가능성도 있으나 「20달러 전후의 油價는 Netback 방식에 근거를 둔 가격이기 때문에 美國어반대하지 않을 것」 (석유관계 소식통)으로 보여지고 있다.